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3년 2월 5일

CUOMO 주지사, 새로운 제작후-세금 감면 제도가 기록적인 수의 신청자를 끌었다고 발표

새 프로그램 하에서 신청자가 배증하여 주 전역에 일자리와 새로운 소비를 창출

뉴욕주는 "동쪽의 할리우드"로 지칭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작년에 주지사가 옹호하고 서명하여 입법화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제작후 작업을 위해 뉴욕주에 신청한 사람의 수가 급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이 법안은 제작후 활동을 뉴욕주에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이 법률이 발효된 이래, 34명의 제작자가 뉴욕주에서의 제작후 작업을 신청하여 이전의 세금 감면에 의거 2년 기간 동안 받은 신청 건수의 2배가 되어 뉴욕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"작년 7월에 뉴욕주는 제작후 작업을 위해 제작자, 편집자 및 감독들이 뉴욕주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지원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새 법률로 보내었습니다"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 "단 몇 개월만에 뉴욕주는 여기서 제작후 작업을 하겠다는 기록적인 수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유치하고, 일자리를 창출하며, 경제 활동을 일으키기 위해 스마트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 진전이 미래의 텔레비전과 영화를 위한 세계 수도인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다른 제작자들도 오라는 초대가 되게 합시다."

2012년 7월에 Cuomo 지사가 서명한 이 새 법률은 뉴욕시와 Dutchess, Nassau, Orange, Putnam, Rockland,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를 포함한 광역 뉴욕 통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제작후 세금감면을 10%에서 30%로 늘렸습니다. 북부 뉴욕주에서의 제작후 작업의 경우, 이 지역에 추가 투자와 새 설비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35%의 세금감면이 제공되었습니다.

지금까지 루이지애나, 조지아, 아이다호 및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주들과 멀리 요르단에서 촬영된 프로젝트의 제작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이 작업은 뉴욕주에 2300만 달러의 새 소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"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의 텔레비전 및 영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새로운 제작들을 유치하여 뉴욕주에 더 많은 투자와 뉴요커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"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,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말했습니다. "뉴욕주가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을 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"

세금감면을 위한 신규 신청 중에는 Benaroya Pictures의 장편 극영화인 *Hateship Friendship Courtship Loveship Marriage*가 있습니다.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Kristen Wiig와 Guy Pearce이며, 감독은 Liza Johnson이고, 대본은 Alice Munro의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Mark Jude Poirier가 썼습니다.

"뉴욕주의 제작후 세금감면은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게임체인저였습니다"라고 이 영화의 제작자인 Jamin O'Brien이 말했습니다. "제작후 세금감면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영화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. 뉴욕주 지출에 대한 30% 세액공제는 우리 재무 계획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. 제작후만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주는 아주 소수인데 뉴욕주는 그 중 하나로서 감독과 제작자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에서 영화를 발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"

뉴올리언즈에서 촬영되었지만 제작후 작업은 뉴욕주에서 한 *Random*의 제작자인 Electric City Entertainment의 Jamie Patricof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"뉴욕은 영화를 편집하기 위한 멋진 장소입니다. 놀랄만한 설비와 큰 인재 풀로 옵션은 무제한적입니다. 새 인센티브 덕분에 우리는 이제 뉴욕주에서 촬영할 수 없는 곳에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갖고 갈 수 있습니다."

제작후 작업에는 촬영이 완료된 후의 모든 편집과 시각 효과, 컬러 보정, 음향 편집 및 믹싱이 포함됩니다. 이 산업은 또한 엔지니어 및 메신저에서부터 창의적인 보조원에 이르기까지 수 천개의 다른 일자리도 포함합니다. 이 강화된 법은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제작후 작업을 유치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둔 주정부 지원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 다른 주들은 제작 도피를 겪고 있는 시기에 뉴욕주의 강화된 세액공제는 수 십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직간접 취업 및 경제적 기회의 주요 원천이 된 견실한 산업 클러스터를 뒷받침합니다.

"우리는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뉴욕주에 유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흥분됩니다"라고 Trevanna Post의 상무이사 겸 Post New York Alliance의 집행이사인 Yana Collins Lehman이 말했습니다. "뉴욕시와 주 북부의 후제작 회사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휴 관계와 주 북부 대학들에서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제작후 프로그램은 주지사께서 제작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확장한 직접적 결과입니다. 우리 설비와 인재들이 이보다 더 바빴던 적은 없습니다. 우리 산업과 우리 주를 위해 아주 흥분되는 시기입니다."

뉴욕주의 영화 및 텔레비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http://www.nylovesfilm.com/tax.asp를 방문하십시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